



Built to Lead

즉시 배포용: 2016 년 7 월 21 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쿠오모 주지사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 판매세와 이용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합니다

앤드류 M.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없애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

이 법안 (A.7555-A / S.7838)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 지역 판매세와 뉴욕 주 판매세를 면제합니다

“이것은 여성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불해야만 했던 사회 경제적 정의에 대한 문제인 여성용 필수품에 대한 역진세입니다,” 라고 쿠오모 주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저는 Rosenthal 뉴욕 주 여성 하원의원과 Serino 뉴욕 주 상원의원이 강력한 지지로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울인 대단한 노력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.”

여성용 위생용품은 1965 년 처음으로 뉴욕 주 판매세를 도입한 이래로 계속 과세되어 왔고, 심지어는 면세 제품이었던 식이요법 및 가족 계획 제품들과 같은 다양한 다른 제품들로 확대되었습니다.

뉴욕 주는 여성 위생용품에서 판매세를 면제하는 운동에 참여한 최초의 주들 중의 하나입니다, 이 법안으로 여성들이 구매하는 탐폰과 다른 유사한 제품들로부터 대략 천만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Sue Serino 뉴욕 주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, “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므로써, 우리는 현실과 무관했던 세법을 개혁하는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청취하고 있을 뉴욕 주의 모든 여성들에게 보냅니다. 이런 날이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 세금을 과거의 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뉴욕 주 상원의 동료 상원 의원들 뿐만 아니라 쿠오모 주지사님께도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. 모든 뉴욕 주민이 우리 뉴욕 주에서 좀 더 여유있게 살수 있도록, 우리의 세법에 상식을 적용하는 길을 우리가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.”

Linda B.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, “뉴욕 주 판매세와 지역 판매세를 여성용 위생용품에서 면제하는 저의 법안에 주지사님이 서명하신 것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 법안에 서명하는 일은 법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. 뉴욕 주 전역의 여성들은, 여성들이 행정부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절에 부과되어 오래 지속되어온 세금에 이제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. 탐폰 세금은 역진세입니다, 이것을 제거하는

일은 모든 여성들에게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,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제품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피하게 해주는 일입니다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